

## 총 평

이번 제 125 회 전산회계 2 급 시험은 최근 3 개년 기출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새로운 유형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형태의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125 회 이론에서는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구분, 당기순이익 계산, 현금과부족의 결산 처리,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 처리, 재고자산 단가결정, 유동·비유동 항목 판별 등 기본 개념 중심의 문제가 고르게 배치되었습니다.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 또는 최근 회차와 비교하면 다소 평이한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낯선 지문이 많은 시험은 아니었지만, 쉬워 보이는 문제 안에서도 계정과목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거나 차변·대변의 방향을 혼동하면 실점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보입니다. 즉, '어려운 시험'이었다기보다는 '기본기를 정확히 갖춘 수험생이 유리한 시험'이었다는 점이 이번 회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최근 기출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뤄진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매매증권 관련 논점이 이번에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출을 충실히 반복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대응 가능했을 시험입니다.

이론시험의 출제 성향을 보면, 단순 암기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개념의 정확한 구분이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은 재무상태표 계정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의 영업외비용 계정이며, 현금과부족은 결산 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또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물가상승 상황에서 재고자산의 기말금액은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고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이번 시험은 생소한 주제를 묻기보다는, 자주 접했던 개념을 끝까지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실무시험 역시 최근 전산회계 2 급의 전형적인 흐름 안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회사등록사항 점검, 기초정보 확인, 일반전표 입력, 결산 관련 처리 등 익숙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최근 기출문제와 실무형 연습을 충분히 해온 수험생에게는 비교적 무난한 구성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큼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큰 틀보다 세부 처리에서 점수가 갈리기 때문에, 선수금·예수금·미수금 등의 계정 구분, 비용과 자산의 구분, 결산 시 수정분개, 입력 순서와 전표 반영 여부 등을 정확히 처리하는 연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제 125 회 시험은 기출 기반 학습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시험이었습니다. 고난도 응용문제보다는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정과목과 분개를 흔들림 없이 연결할 수 있는 수험생에게 유리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새로운 문제를 무리하게 넓히기보다는, 최근 기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재무제표 계정 분류, 현금과부족, 재고자산 단가결정, 단기매매증권, 대손충당금, 결산수정분개를 중심으로 기본기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학습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 최대리 전산세무회계 → <https://cafe.naver.com/choidairi>

# 와우패스 회계/세무 → <https://wowpass.com/TAXACCOUNT>

여러분들의 목표를 와우패스&최대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